

2018 학년도 덴마크 Aalborg University(AAU) 공과대학 교환학생 후기

기계항공공학부 박현규

1. 기간

2018.08. 22 출국 ~ 2019.01. 27 귀국 (2018 가을학기)

2. 교환학생 가기 전 준비사항

AAU 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적표와 요구하는 어학 점수 그리고 지원자의 정보와 원하는 학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AAU 는 Copenhagen, Aalborg, Esbjerg 의 세 캠퍼스로 나뉘어 있어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캠퍼스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AAU 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선택하는 학과와 학기에 따라 수강해야 할 강좌가 모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강신청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았지만, 현지의 학생들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타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보다 수업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 1가구부터 1인 4가구까지 다양한데, 늦게 신청할 경우 원하는 곳에 배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확정 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덴마크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3~4 주 정도 걸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비자신청 과정에서 영어 인터뷰를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당 도시 도착 후 해야 할 일

저는 Aalborg campus 의 thermal energy engineering 에 지원했습니다. 세 캠퍼스가 모두 같은 지는 모르겠으나, Aalborg 캠퍼스의 경우 처음에 IAO (International Accomodation Office) 에 들러 기숙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키를 수령합니다. 이 때, 베개와 이불을 필요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alborg 의 행정을 담당하는 Aalborg kommune 에서 Health Insurance card 의 일종인 Yellow card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덴마크에서 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를 원할 때 필요한 NemID 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ommune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정도 까지만 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면 바빠서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받은 덴마크 비자는 입국 후 90 일 정도 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거주인증을 받고 Residence card 도 받아야 합니다.

4. AAU의 교육

AAU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학생들부터 교수님까지 모두 영어를 굉장히 유창한 수준으로 구사하기 때문에 덴마크어를 학습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반과목들의 경우,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정해진 그룹내에서 부여된 과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학생들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과제의 수준이 매우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roblem Based Learning 이라는 수업방식을 활용하는데, 주어진 여러 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팀원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룹 프로젝트 같은 것인데,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교수님의 지도 하에 한 학기동안 프로젝트를 진행 하게 됩니다. 저는 30ECTS 를 수강했는데, 이 그룹 프로젝트가 15ECTS 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과정 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고, 투자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시험은 학기가 모두 끝난 후에 1 번 실시되었으며, 모두 oral exam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걱정했으나 교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러한 부분은 모두 감안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룹프로젝트에 대한 시험에서는 여러 명의 교수님이 비판적이고 자세하게 질문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나 확인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5. AAU 생활

출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건물마다 배치가 되어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으며, 출력에 필요한 포인트를 어느정도 지원해줍니다. 학기 중간에 study trip 도 있었는데, 600 DKK 정도의 금액으로 베를린을 4박 5 일동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Lufthansa, BMW, SIEMENS, Johnson control 등의 기업을 견학) 구내식당은 뷔페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무게에 따라 가격을 책정합니다. 주로 파스타나 샐러드, 볶음밥 종류의 음식이 주를 이룹니다. 저는 밥을 다소 많이 먹는 편이라 한끼에 한화로 7000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심을 챙겨오는 편입니다. AAU 는 교환학생의 수는 많지 않지만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은 외국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학생들과 함께하는 포스터파티 같은 행사도 있고,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6. 그 외 내용

Aalborg 시내에는 Studenthouse 라는 pub 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 학생들을 위한 파티가 열려서 저렴한 가격에 여러 사람을 만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 karaoke party 도 종종 열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Aalborg 에는 공항이 있어 유럽 내 국가들을 여행하기도 편리합니다.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 자전거가 있습니다. 버스는 카드를 만들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Aalborg bus terminal 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Aalborg 는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고,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오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덴마크의 물가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밖에서 사먹기 보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학교근처의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인근 마트인 føtex 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파티도 주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요리하며 즐깁니다.

7. 교환학생 후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에게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소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영어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 직접 부딪히며 생활해보며 느낀 것은 결국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며 어려워 하는 부분은 같은 반 친구들과 교수님이 도와줬고, 행정적인 부분은 해당학교 관계자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제 사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복잡해 '내가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마치고 온 지금 저에게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단순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김희선 선생님과 많은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동문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며 마치겠습니다.